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7년 11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15.(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1. 15.(수)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이원희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홍석민 사무관(044-203-4042)

2017년 1~9월 누적 수출 동향 및 특징

- '17. 11. 15(수) 배포 -

○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7년 1~9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임

○ 연간 통계 확정시(2018.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17년 3분기까지 수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 연간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

- **[품목별] ①일반기계 수출 2위(362.3억불)**
  ②MCP가 DRAM에 이어 반도체 세부품목 수출비중 2위(DRAM 22.9%, MCP 21.5%)
  ③8대 신산업 7개 품목 모두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
- **[지역별] ①아세안 2위(711.9억불) 수출 지역으로 자리매김**
  ②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 수출비중 30.3%
  ③교역규모 비중 5% 이상인 주요 FTA 발효국(중국·아세안·미국·EU·베트남)에 대한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

1. '17년 1~3분기('17.1~9월) 수출 동향 개요

□ '17년 **1~3분기**('17.1~9월)**까지 수출**은 **4,30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 연간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 수출 실적 기록

* (역대 2위) '14.1~3분기 4,249.7억불, (역대 3위) '11.1~3분기 4,148.4억불

○ **사상 최대 분기 수출금액**을 기록한 **지난 3분기 수출**(1,510.4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4.0%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누계 기준 수출도 크게 선전

* 분기별 수출증감률(%) : ('16.1Q) △13.7 → (2Q) △6.7 → (3Q) △5.0 → (4Q) 1.8 → ('17.1Q) 14.7 → ('17.2Q) 16.7 → ('17.3Q) 24.0

< '17년 1~3분기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6년	'17년			
	1~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수 출 (증감률)	3,630.6 (△8.5)	1,320.8 (14.7)	1,470.7 (16.7)	1,510.4 (24.0)	**4,301.9 (18.5)**

○ 품목별로는 **반도체·일반기계·철강** 등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 견인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반도체) 53.9, (일반기계) 11.0, (철강) 24.7, (석유제품) 32.7

- 특히, 8대 신산업*은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 총 수출의 12.0%** 차지하는 등 **호조세 지속**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DP, 바이오헬스, 2차전지, 항공우주, 태양광, 첨단신소재, 전기차, 로봇, 스마트미터 (2차전지·태양광·스마트미터는 '에너지 신산업' 세부품목)

○ 지역별로는 **중동**(△0.7%)을 **제외**한 **9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수출 성장**

* 주요지역 수출증감률(%) : (중국) 13.4, (아세안) 30.6, (미국) 5.3, (EU) 22.8

try of Trade, try and Energy

2. 주요 품목별 특징 분석

□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 등 품목 중심으로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증가한 10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 : (반도체) 692.2(53.9), (일반기계) 362.3(11.0), (선박) 355.3(36.7), (석유화학) 335.5(26.3), (자동차) 317.9(12.0), (철강) 267.9(24.7), (석유제품) 255.2(32.7), (디스플레이) 205.6(13.1), (차부품) 178.1(△6.1), (무선통신기기) 162.9(△24.3), (섬유) 103.5(1.5), (가전) 68.9(△19.8), (컴퓨터) 66.5(9.0)

○ **수출비중**은 **반도체, 일반기계,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順

* 주력품목별 수출비중('17.1~9월, %) : (반도체) 16.1, (일반기계) 8.4, (선박) 8.3, (석유화학) 7.8, (자동차) 7.4, (철강) 6.2, (석유제품) 5.9, (디스플레이) 4.8, (차부품) 4.1, (무선통신기기) 3.8, (섬유) 2.4, (가전) 1.6, (컴퓨터) 1.5

○ 세부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패션잡화, 반도체, 합성고무, 철강관·철강선**이 **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MTI 3단위 기준, 10억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

* 세부품목 수출증가율('17.1~9월, %)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13.7, (패션잡화) 211.5, (반도체) 53.9, (합성고무) 49.9, (철강관·철강선) 47.4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15 10:56:19

□ 또한, '17년 3분기까지의 수출 호조세를 이끈 **반도체·일반기계·철강 등 품목**은 **대부분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성장**이 아닌 **지역별 고른 성장세**

< 품목별 주요지역 수출 증감 현황(10대 주요지역 기준) >

구 분	주요 내용
10개 지역 모두 증가	석유화학
9개 지역 증가	일반기계(중동↓), 철강(EU↓), 석유제품(중남미↓)
8개 지역 증가	반도체(미국·일본↓), 디스플레이(중국·미국↓), 컴퓨터(중국·아세안↓)
7개 지역 증가	선박(아세안·베트남·인도↓), 자동차(중국·일본·인도↓)

* 10대 주요지역 : 중국, 아세안, 미국, 베트남, EU,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CIS

○ **(석유화학) 10대 주요지역** 모두 **수출이 각 14% 이상 견조하게 성장**

*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 (중국) 45.4, (아세안) 11.8, (EU) 8.7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중국) 152(27.2), (아세안) 40(33.3), (EU) 29(18.6)

- **유가** 및 **수출 단가 상승,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한 **미국 설비 일부 가동 중단** 등 효과

* 수출단가($/B, 전년비%) : ('16.1~9월) 1,030 → ('17.1~9월) 1,188 (15.3%↑)
  수출물량(ton, 전년비%) : ('16.1~9월) 25,782 → ('17.1~9월) 28,244 (9.5%↑)

○ **(일반기계)** 주요국 **건설경기 회복세** 및 **신흥국 설비투자 확대**로 반도체에 이어 **수출 상위 2위 품목(362.3억불)**으로 자리매김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중국) 79(7.3), (아세안) 65(42.8), (미국) 55(11.6)

- **아세안**이 **미국을 제치고 일반기계 2위 수출**(65.2억불) **지역**으로 복귀 ('13년도에 이어 두 번째 2위)

*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 (중국) 21.9, (아세안) 18.0, (미국) 15.3
* 아세안 일반기계 수출 순위 : ('11) 5위 → ('13) 2위 → ('15) 3위 → ('17.1~9월) 2위

○ **(철강) 수출**의 **지역 집중도가 두 번째로 낮은**(1위 선박) 철강은 **EU를 제외한 9개 주요지역**(7개 주요지역 20% 이상 증가)에서 **수출 증가**

* 허쉬만-허핀달지수(지역별 수출비중 기준, %) : (전체) 1,216.7, (선박) 533.6, (철강) 962.3
*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 (아세안) 18.5, (중국) 12.0, (일본) 11.0, (인도) 6.2

- **철강재 수출 단가 상승,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특히, **아세안·인도**에서 **40% 이상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 견인**

* 글로벌 철강가격지수(CRU, '94=100) : ('16.9)142.7→('17.7)162.5→(8)170.4→(9)180.0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아세안) 50(41.3), (일본) 30(30.7), (인도) 17(42.1)

○ **(석유제품)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등으로 **9개 주요지역**(중남미 제외)의 **수출이 증가**

* 수출단가($/B, 전년비%) : ('16.1~9) 47.81 → ('17.1~9) 61.86 (29.4%↑)
*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 (아세안) 25.7, (중국) 17.6, (미국) 10.2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아세안) 66(24.2), (중국) 45(28.3), (미국) 26(44.7)

- 다만, **수출비중**은 **'12년 이후**로 **감소추세로 금년도**는 약 **6%** 수준

* 석유제품 수출비중(%) : ('12) 10.2→('14) 8.9→('16) 5.3→('17.1~9) 5.9

○ **(디스플레이)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대**로 특히 **베트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0.4% 성장**

* '17.1~9월 주요지역 수출비중(%) : (중국) 55.9, (아세안) 25.0, (베트남) 23.6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중국) 115(△14.3), (아세안) 51(152.9), (베트남) 49(180.4)

- **아세안 수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11.5→25.0%로 성장**하여 **20%대**로 **최초 진입**한 반면, **중국은 73.8→55.9%**로 **하락**

* 디스플레이 아세안 수출비중(%) : ('12) 3.5→('14) 4.0→('16) 11.5→('17.1~9) 25.0

○ **(반도체) 복합구조집적회로**(MCP)가 **세부품목별 수출비중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DRAM에 이어 2위 품목**으로 부상하는 등 **고부가가치화**

* 반도체 중 MCP 수출비중(%) : ('12) 13.6→('14) 15.8→('16) 25.1→('17.1~9) 21.5
* '17.1~9월 누계 수출액·반도체 중 수출비중(억불, %) : (DRAM) 159(22.9), (MCP) 149(21.5)

- 금년 3분기까지 **월평균 수출 증가율이 50% 이상**으로 **고성장 지속**

* 수출증감률(%) : ('17.1) 39.4→(2) 54.1→(3) 41.7→(4) 56.8→(5) 53.6→(6) 52.0→(7) 57.7→(8) 56.7→(9) 70.0

□ 한편, **유망소비재, 8대 신산업 수출**이 **지속 성장**하여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15년부터 80%**를 **하회**하는 등 **품목 다변화 추세**

*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 : ('11) 82.1→('13) 80.6→('15) 79.3→('16) 77.9→('17.1~9) 78.4

○ **(유망소비재)** 유망소비재(농수산식품·화장품·패션의류·생활용품·의약품)는 생활용품(38.9%↑), 화장품(19.1%↑) 증가에 힘입어, '07년 이후 **10년만**에 **수출액** 및 **수출비중 2배 이상 성장**

* 유망 소비재 수출액·수출비중(억불, %) : ('07) 71(1.9) → ('17.1~9월) 201(4.7)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생활용품) 64(38.9), (화장품) 36(19.1)

- 특히, **역대 최초**로 **생활용품**이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유망소비재 중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 품목별 수출비중(%) : (생활용품) 1.5, (농수산식품) 1.4, (화장품) 0.8, (의약품) 0.5, (패션의류) 0.4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15 10:56:19

○ **(8대 신산업)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환경·안전규제 강화** 등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 및 **고부가 상품 개발**로 금년 3분기까지 **신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514.8억 달러, 총 수출**의 **12.0%** 기록

* 신산업 수출액·수출비중(%) : ('12) 454(8.3) → ('14) 480(8.4) → ('16) 554(11.2) → ('17.1～9월) 515(12.0)
* '태양광'은 '17년부터 실적집계가 가능하여 증가율은 태양광 실적을 제외하고 도출

- 8대 신산업 중 차세대반도체(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OLED) 중심으로 **7개 품목**이 **증가세**이며, **7개 품목 모두 10% 이상 증가**

*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 : (차세대반도체) 316.3(22.1), (차세대DP) 64.4(28.4), (바이오헬스) 31.0(11.1), (2차전지) 26.1(26.2), (항공우주) 24.2(44.0), (태양광) 21.1(N/A), (첨단신소재) 20.5(14.6), (전기차) 6.1(140.6), (로봇) 4.9(△0.1), (스마트미터) 0.4(81.7)
* 태양광・2차전지・스마트미터는 '에너지 신산업'의 세부품목, '태양광'은 '17년 HS코드 전면 신설로 '17년 이전 통관기준 수출 실적 계산 불가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DP**가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나, **2차전지·항공우주·전기차** 등 **급증세**로 신산업 내 **품목 다변화 전망**

* 세부품목 수출비중(%) : (차세대반도체) 61.4, (차세대DP) 12.5, (에너지신산업) 9.2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2차전지) 26(26.2), (항공우주) 24(44.0), (전기차) 6(140.6)

3. 주요 지역별 특징 분석

□ 중국·아세안 등 **9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출이 증가한 주요지역 중 **미국 제외 8개 주요지역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 지역별 수출비중('17.1～9월, %) : (중국) 23.6, (아세안) 16.5, (미국) 12.1, (EU) 9.7, (베트남) 8.2, (중남미) 5.0, (일본) 4.6, (중동) 4.3, (인도) 2.8, (CIS) 1.7

* 수출액/증감률('17.1～9월, 억불·%) : (중국) 1,016.7(13.4), (아세안) 711.9(30.6), (미국) 522.2(5.3), (베트남) 354.2(50.5), (EU) 415.4(22.8), (중남미) 216.8(14.0), (일본) 200.0(12.7), (중동) 184.4(△0.7), (인도) 119.0(39.8), (CIS) 72.3(44.3),

○ '16년부터 **베트남이 5위 수출 지역**으로 부상('17.1~9월 수출비중 8.2%)

* 베트남 수출액(억불)·순위 : ('11) 135, 9위 → ('13) 211, 8위 → ('15) 278, 7위 → ('16) 326, 5위 → ('17.1～9) 354, 5위

○ **중남미 수출비중**은 '08년부터 지속적으로('12년 제외) **일본을 상회**

* 중남미 수출비중(%) : ('07) 6.9 → ('09) 7.4 → ('11) 7.2 → ('13) 6.5 → ('15) 5.8 → ('17.1～9) 5.0
* 일본 수출비중(%) : ('07) 7.1 → ('09) 6.0 → ('11) 7.1 → ('13) 6.2 → ('15) 4.9 → ('17.1～9) 4.6

□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아세안·베트남·인도**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수출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 진전**

* G2(중국·미국) 수출비중(%) : ('07) 34.4 → ('09) 34.2 → ('11) 34.3 → ('13) 37.2 → ('15) 39.3 → ('16) 38.5 → ('17.1～9) 35.8
*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 수출비중(%) : ('07) 27.5 → ('09) 29.2 → ('11) 31.0 → ('13) 31.7 → ('15) 29.4 → ('16) 29.2 → ('17.1～9) 30.3

○ **(중국)**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 증가 추세**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반도체) 268(52.7), (석유화학) 152(27.2), (철강) 32(9.5)

- 다만, **수출비중**이 **금년 들어 20% 중반 밑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

* 對중국 수출 비중(%) : ('13) 26.1 → ('15) 26.0 → ('16) 25.1 → ('17.1～9) 23.6

○ **(아세안) 글로벌 밸류체인 심화**에 따른 현지 생산기지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증가**로, '11년 이후부터 중국에 이어 **2위 수출 지역**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반도체) 135(55.8), (디스플레이) 51(152.9)

- 3분기까지 30% 이상 수출 증가로, **역대 최고 수출비중(16.5%) 기록**

* 對아세안 수출비중(%) : ('11) 12.9 → ('13) 14.7 → ('15) 14.2 → ('16) 15.0 → ('17.1～9) 16.5
* 對아세안 교역액(억불) : ('11) 1,249 → ('13) 1,353 → ('15) 1,199 → ('16) 1,188 → ('17.1～9) 1,108

○ **(미국)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보합세**에도 불구, 미국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 증가**

* 주요품목 수출비중(억불, %) : (자동차) 21.6, (일반기계) 10.6, (철강) 5.5, (석유제품) 5.0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일반기계) 55(11.6), (철강) 29(20.5)

- **일반기계**는 **對미국 4위 품목**에서 **2위 품목**(수출비중 10.6%)으로 **부상**

○ **(EU) 내수·수출 호조** 등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선박) 69(120.5), (자동차) 57(46.0), (일반기계) 44(10.2)

- **감소 추세**였던 **수출비중**이 **'14년부터 회복**되어 **금년 3분기까지 9.7%**

* 對EU 수출비중(%) : ('10) 11.5 → ('12) 9.0 → ('14) 9.0 → ('16) 9.4 → ('17.1～9) 9.7

- '15년부터 **선박 수출 1위**('13~'14년은 중남미) **지역으로 다시금 부상**

* 주요지역 선박 수출비중(%) : (EU) 19.4, (중남미) 9.8, (아세안) 7.2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15 10:56:19

○ (인도) 화폐·세제개혁으로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품목**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주요품목 수출액·증감률(억불, %) : (석유화학) 17(39.4), (철강) 17(42.1), (무선통신기기) 14(100.1)

- **'13년 이후 수출비중 증가 추세**로, **금년 3분기까지 2.8%** 수준

* 對인도 수출 비중(%) : ('11) 2.3 → ('13) 2.0 → ('15) 2.3 → ('16) 2.3 → ('17.1~9) 2.8

- 특히, **대부분 주요지역에서 부진**했던 **무선통신기기**가 **100.1% 증가**

* 주요지역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 : (중국) △0.7, (미국) △24.0, (아세안) △32.5

○ (CIS)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소비·생산 증대**로 수출비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차부품 강세 확대** 등 **12개 주력품목 수출 증가**

* 주요품목 수출비중(억불, %) : (자동차) 18.6, (차부품) 18.4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자동차) 13(75.2), (차부품) 13(77.9)

- 최대 수출지역인 **러시아(수출비중 75.2%)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

* '17.1~9월 누계 수출액·증감률(억불, %) : (러시아) 54(56.3), (우즈벡) 9(45.6)
* 對CIS 수출 비중(%) : ('11) 2.6 → ('13) 2.8 → ('15) 1.3 → ('16) 1.4 → ('17.1~9) 1.7

□ 한편, **주요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품목 다변화**가 **진전**되고, 주요 **발효국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

* 주요 FTA 발효국(발효연도) : **우리나라 교역비중 5% 이상 국가(지역)**인 **중국('15), 아세안('07), 미국('12), EU('11), 베트남('15) 분석**

○ 주요 **FTA 발효국***에 대한 **1천불 이상 수출 품목수**가 각각의 지역별 FTA 발효 **직전연도 대비 '16년에 평균 약 10.8% 증가**

* 주요 FTA 발효국 1천불 이상 품목수 현황(발효직전연도→'16년, 개) : (중국) 6,445 → 6,432 (△0.2%), (아세안) 5,682 → 7,261 (28.9%↑), (미국) 5,125 → 5,656 (10.4↑), (EU) 4,800 → 5,096 (6.2%↑), (베트남) 5,082 → 5,624 (11.8%↑)

- **주요 FTA 발효국** 대부분의 **수출 다양도*** **비중**이 전체 수출 다양도 비중(45.1%) 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FTA 발효국 수출 품목 다변화**

* 수출 다양도(Extensive Margin) : 신규품목 수출액에서 수출중단 품목 수출액을 제한 금액이 전체 수출 증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수출 다양도('00 대비 '16, %) : (중국) 50.3, (아세안) 53.9, (미국) 53.4, (EU) 34.5, (베트남) 58.9

○ 발효국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 점유율 상승 추세** (中 제외)

< 주요 지역별 수출 다양도('00년 대비 '16) 및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구 분	발효시기	수출 다양도		수입시장 內 한국 점유율
중국	'15.12월	전체 45.1	50.3	('15) 10.9 → ('16) 10.4 → ('17.1~9) 9.8
아세안	'07.6월		53.9	('07) 5.0 → ('11) 6.1 → ('13) 6.5 → ('15) 6.9 → ('16) 7.2
미국	'12.3월		53.4	('11) 2.6 → ('13) 2.7 → ('15) 3.2 → ('16) 3.2 → ('17.1~8) 3.1
EU	'11.7월		34.5	('11) 0.8 → ('13) 0.8 → ('15) 0.9 → ('16) 0.9 → ('17.1~5) 1.0
베트남	'15.12월		58.9	('15) 15.4 → ('16) 18.1

* 지역별로 가용한 최신 통계를 활용하여 점유율 도출

try of Trade,
try and Energy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홍석민 사무관(☎ 044-203-4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15 10:56:19